(767)

조 선

주체109
(2020)
6

차 례

표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창조물 순천린비료공장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지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관건적인 시기에 조성된 대내외정세속에서 국가방위력과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해야 할 필수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자주권을 철벽으로 보위하며 적대세력들의 지속적인 크고작은 군사적위협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할수 있도록 전반적공화국무장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대책들과 조직정치적대책들이 연구토의되였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대를 비롯한 전반적 공화국무력의 군사정치활동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총화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편성하여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억제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당의 혁명적군사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부문별과업들이 다시한번 강조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하고 일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무력기관의 주요직제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정면돌파전의 위대한 승리의 첫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 격려하며 주요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며 군사, 정치,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조직진행해나가기 위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공화국무장력이 군사정치활동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나갈 중요문제들과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새로운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들과 중요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에 관한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할데 대한 명령서,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를 비롯한 7건의 명령서들에 친필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이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생산구역, 교양 및 생활구역으로 구분되여있는 순천린비료공장은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여있고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 환경보호형으로 이루어진 화학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린비료공업이 창설됨으로써 한평생을 바치시여 사회주의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건설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건설자들, 평안남도안의 근로자들과 함께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또다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에게 따뜻이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완공된 공장의 생산공정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원료가공공정, 황린생산공정, 린안생산공정, 제품포장공정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제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마음놓고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 전심할수 있게 되였다고, 순천린비료공장은 당정책절대신봉자들이 군민일치의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순천린비료공장의 완공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이후 이룩한 첫 성과이며 우리 나라 화학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
2020년5월1일

공업을 한계단 도약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 소중한 성과를 불씨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역에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린비료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통합생산체계를 더욱 완비하며 생산공정을 안정하게 운영할데 대한 문제, 환경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비료공장들을 전반적으로 개건현대화하며 새로운 화학공업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화학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 정 은 동 지 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5돐에 즈음하여 기념메달을 드리였다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 ЮБИЛЕЙНОЙ МЕДАЛИ

„75 ЛЕТ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 – 1945 гг."

„75 ЛЕТ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 – 1945 гг."

А № 0186738

Председатель
(фамил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имя)
Ким Чен Ын
(отчество)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3 июня 2019 г.
награжден(а) юбилейной медалью
„75 ЛЕТ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 – 1945 гг."

От имен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едаль вручена
« 5 » мая 2020 г.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НДР
М.П.

수도의 거리를 더 밝고 아름답게

사진 손희연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 마련

-대규모관개체계인 황해남도물길건설 성과적으로 결속-

황해남도에 대규모자연흐름식물길에 의한 관개체계가 수립되였다.

주체101(2012)년 1월에 착공한 황해남도물길건설은 1 180여만㎥에 달하는 토량을 처리하고 수십개의 물길굴과 770여개에 달하는 각종 구조물들을 설치하며 190여㎞의 물길을 형성해야 하는 지금까지의 자연흐름식관개망건설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자연개조사업이였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자연을 다스리며 주체105(2016)년에 1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한 건설자들은 다음해 1월부터는 2단계공사를 계속 완강하게 벌려나갔다.

토량처리와 암반굴착, 콩크리트타입 등 기초공사량부터 방대하고 저수지언제와 200여리의 물길, 물길굴과 잠관, 암거를 비롯한 수백개의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 2단계공사의 전과정도 결코 간단치 않았다.

건설자들은 물길건설을 제기일에 질적으로 완공하기 위해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켰으며 새 기술창조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하여 수백건의 합리적인 공법과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였다.

건설자들은 공사장들의 주변에 수십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심었으며 침수지역 인민들을 위한 사회주의선경마을들도 새롭게 일떠세웠다.

황해남도물길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벽성군, 강령군, 옹진군, 봉천군, 청단군과 새로 개간되는 룡매도간석지 등 서부지구의 곡창지대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대주어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황해남도에 자연흐름식물길에 의한 관개망이 형성됨으로 하여 해마다 수천만kWh의 전력과 수많은 양수설비들을 쓰지 않게 되였으며 재령강과 례성강하류지역의 큰물피해를 방지하고 대지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킬수 있게 되였다.

글 최광호

원흥땅의 사과꽃바다

봄을 맞이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사과꽃바다가 펼쳐졌다.

대동강기슭을 따라 아득히 뻗어간 수천정보의 사과밭들이 온통 새하얀 《눈》속에 묻혔다.

일터와 마을들마다에는 사과꽃향기가 넘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친다.

단지 자연이 준 혜택이 아니여서이다.

이곳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난 겨울철의 이상기후조건에서도 과수의 과학화를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 사과나무비배관리를 깐지게 하여 오늘의 풍경을 펼쳐놓았다.

양봉작업반의 양봉공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바쁜 철이다.

그들은 벌통수를 더욱 늘이는것과 함께 꿀벌관리를 잘하여 사과밭들에서의 수정이 잘되도록 하고있다.

그들의 노력에 이끌려 황금열매 주렁질 가을이 다가오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박영조

굴지의 유색금속생산기지로 변모된 3월5일청년광산

지금으로부터 40년전에 조업한 3월5일청년광산은 수년전까지도 북방의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로만 알려졌었다.

이 일대에는 여러가지 유용성분들이 포함된 금속광물들이 풍부히 매장되여있으며 그 개발조건도 유리하다.

오늘 층층을 이루며 펼쳐진 드넓은 로천채굴장과 대형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파쇄장들, 건평 수만㎡에 달하는 두개의 선광장 등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광산의 모습은 자랑찬 발전사와 함께 밝은 전망을 가늠할수 있게 하고있다.

그러나 광산의 가장 큰 발전담보는 갖은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하여오는 과정에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자력부흥, 자력번영의 억센 신념이다.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을 생산장성의 기본열쇠로 틀어쥔 광산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과학연구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고 새로운 생산공정들도 일떠세우고있다.

몇해전 광산에서는 생산된 정광을 백수십㎞밖의 지역까지 수송하여 제련하던 종전의 방식을 없애고 현지에서 여러가지 유색금속제품들을 생산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래야 기업경영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는것은 물론 나라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북방의 자연조건에서도 건설을 줄기차게 내밀수 있는 새로운 시공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련소건설을 완공하였다.

류산생산공정

전기동생산공정

몰리브덴생산공정

제련소에는 동, 몰리브덴뿐아니라 광석에 포함되여있는 귀금속과 희유금속, 비금속들을 모두 회수하기 위한 공정들을 하나하나 꾸려놓았다.

광산에서는 그와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종업원들 누구나 높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있다.

광산에서 해마다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광산은 종합적인 유색금속생산기지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고있다.

자기 고장을 보다 아름답게 꾸려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생활을 창조하겠다는 이곳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향은 광산의 발전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있다.

종업원수를 비롯한 인구수는 계속 장성하고있어도 이곳 사람들은 누구나 집에 대한 걱정을 전혀 모른다.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탁아소와 유치원을 꾸려주는 사업도 광산의 주요한 사업으로 되고있다.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광산병원은 도시의 병원이나 다름없고 수영장과 롱구장, 배구장 등이 있는 호하원은 도시에서도 쉽게 찾아볼수 없는 체육 및 편의봉사시설이다.

주변의 밭들을 논으로 개간하여 가을이면 벼이삭들이 물결치게 하였으며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내밀어 모든 산을 쓸모있는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고있다.

그와 더불어 광산은 계속 젊어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메기양어의 과학화, 집약화가 실현된 공장

종달온천, 삼천온천 등 3개의 온천이 있어 지명이 붙은 삼천군에는 읍지구에서 솟는 온천을 리용하여 메기를 생산하는 삼천메기공장이 있다.

온천의 물온도는 48℃～50℃, 하루 용출량은 수천m^3에 달한다.

20여년의 연혁을 가지고있는 공장은 3년전에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훌륭하게 실현된 대규모양어기지로 완전히 변모되였다.

하여 년간 300t이였던 물고기생산능력은 10배로 높아졌다.

공장에는 종어호동과 알깨우기호동, 비육호동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실내생산장이 있으며 야외못도 90여개나 된다.

그와 함께 랭동저장고와 메기제품생산공정, 사료가공공정, 첨가제생산공정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된 공장에서는 실내 및 야외못들의 물온도와 페하, 산소량을 실시간 측정조정하면서 물고기들의 생육상태에 알맞게 물공급과 먹이량을 자동조종하고있다.

팽화먹이와 첨가제를 생산하는 공정들도 마찬가지이다.

알깨우기호동에서는 매달 80여만마리의 새끼고기를 생산보장하고있으며 비육못들에서의 생산량은 물 m^3당 270kg에 달한다.

지난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안겨줄 일념안고 자체의 힘으로 70개의 야외못을 더 건설하여 1 800여t의 물고기를 증산할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갖추어놓았다.

공장에서는 양어부문 전문가들과의 련계밑에 물고기생산주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계속 힘을 넣는것과 함께 메기의 매 생육단계에 따르는 첨가제들을 개발도입하여 물고기먹이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추면서도 증체률을 1.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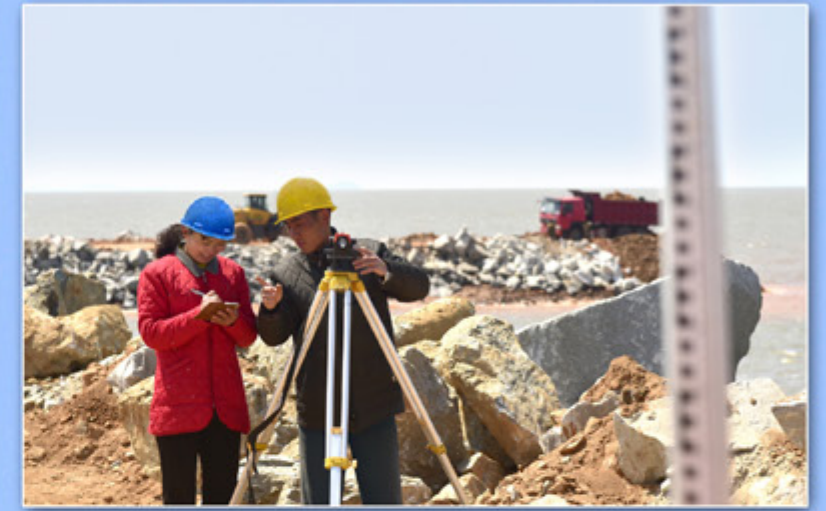
오늘 삼천메기공장은 전국의 메기공장들에 첨단양어기술을 보급하는 원종장으로 되고있다.

사진 홍태웅, 글 최성순

새끼호동

비육호동

알깨우기호동

물재순환장

방조제가 뻗어나간다

안석간석지건설이 완공을 가까이하고있다.

남포시 온천군 안석리로부터 석치리까지의 앞바다에 10여㎞의 방조제를 쌓아 간석지를 개간하는 이 공사가 결속되면 천수백정보의 새땅이 생겨나게 된다.

나라의 만년재보인 국토를 늘여간다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간석지건설자들은 때없이 조성되는 불리한 일기조건속에서도 사시장철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어왔다.

과학기술중시에 비약의 열쇠가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마감막이구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 일대에서의 방조제건설에 가장 합리적인 시공방법들을 도입하면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건설자들은 채석장들에서 새 발파방법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륜전기재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공사에 필요한 돌과 흙을 원만히 보장하면서 방조제건설속도를 계속 높여나갔다.

지난해 1차막이공사를 끝낸 기세로 오늘도 낮에 밤을 이어가며 공사를 다그치고있는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줄기찬 노력에 의하여 온천군서북부일대의 바다는 더욱 멀어지게 되였다.

사진 안철원
글 정기상

《나는 20년만에 대지를 활보하였습니다.》

황수경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가 20년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장애자였다는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걸음마를 뗀지 얼마 안되던 두살때부터 점차 오른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그때에는 마비성내번족이라는 난치의 병을 앓으면 이렇게 된다는것을 리해할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안으로 휘여들어 발잔등이 아예 발바닥이 되다싶이 된 오른다리는 왼다리보다 더 길었고 신발도 신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15분이면 가닿을 학교길도 한시간나마 걸려야 갈수 있었던 나는 12살부터는 아예 집문밖에 나서는것을 단념하였습니다.

결국 의무교육과정도 집에 찾아오는 선생님들을 통해 마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던 나는 16살때에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였습니다.

저를 직접 담당치료한 당시 미세외과연구실 실장이였던 장명국선생님은 그때까지 수십년동안 수많은 환자를 수술하여 완쾌시켰지만 저와 같은 환자는 처음이였다고 후에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검진과 검사가 진행되고 새 치료방법들이 도입되였으며 치료비와 약값은 모두 얼마인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마음쓰고 고심해온 어머니와 꼭같은 모습을 저는 병원의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오래동안 쓰지 못하던 다리의 기능이 완전회복될 때까지 5년세월을 하루같이 보살피고 관심하면서 때로는 책도 읽어주고 때로는 입맛을 돋구어주기 위해 직접 끓인 잉어국도 한술두술 입에 떠넣어주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던 장명국선생님을 비롯한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의 모습은 지금도 저의 눈앞에 생생히 떠오릅니다.

어제날 문밖에도 나서기 저어했던 제가 마침내 굽높은 구두를 신고 병원문을 나서는 날 20년만에 다시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게 된 저를 축하해주며 그리도 기뻐하던 그들의 모습을 앞으로도 정녕 잊지 못할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할아버지이고 큰아버지, 큰어머니였으며 언니들이였습니다.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느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집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라는것을, 여기서 내가 살고 앞으로 나의 자식들도 살리라는것을.

황해북도 승호군 읍 76인민반 황수경
사진 홍광남

홍정국

60발상모돌리기의 주인공

올해 44살인 공훈배우 홍정국은 조선의 민속무용 상모춤의 상징적인 동작인 상모돌리기의 패권자이다.

그는 주체107(2018)년에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출연하여 60발상모를 돌리였다.

한발은 대략 80㎝이다.

홍정국은 16살때부터 상모춤을 추었다.

시간만 나면 선배들을 찾아가 상모춤의 각종 기교들을 익히는 과정에 그는 상모댕기의 길이를 늘이는것으로 작품들의 형상수준을 더 높일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전통적으로 전해내려오는 상모댕기의 길이는 1990년대까지도 12발이 최고였었다.

주체98(2009)년에 24발상모를 돌린 그는 2년후에는 댕기의 길이를 30발로 늘이였다.

그 기록은 3년후 40발상모돌리기로 갱신되였으며 주체107(2018)년에는 60발이라는 경이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그가 60발상모를 돌릴 때면 여러개의 큰 원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장쾌한 광경이 펼쳐져 보는 사람들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게 한다.

사진 리명국, 글 최의림

소년농악무소조원들에게 상모춤의 묘리를 알려주고있다.

해외공연에 참가하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비롯한 여러 공연들에 출연하였다.

꼴문을 지켜 20여년

축구선수 리명국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속에 널리 알려진 문지기이다.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나서자란 그가 축구를 시작한것은 28년전이다.

아버지가 1980년대초까지 국내의 이름난 선수단의 축구문지기였고 큰아버지도 뽈을 찬 그의 집안은 하나의 축구《팀》을 만들만큼 형과 누이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두 축구선수생활과 인연을 맺고있다.

그래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만 하면 축구에 대한 화제가 오르는것이 정상이였다.

9살때부터 축구기술을 다년간 꾸준히 련마한 그는 그후 평양시체육단(당시)에 들어가 중앙방어수로 활약하였었다.

그러던 어느날 사정이 생겨 그가 문지기대신 꼴문을 맡고 경기에 참가한적이 있었다.

늘씬한 키, 정확한 판단과 위치선택, 날렵한 동작으로 날아오는 공들을 훌륭히 처리하는 명국의 《유전》적인 재능에 탄복한 감독은 그에게 문지기가 될것을 권고하였다. 하여 그는 방향전환을 하게 되였다.

축구경기장에 나선 11명의 선수들중 문지기의 역할은 승패결정의 70%를 차지한다고 할수 있다.

어느 위치에서든지 넘어지지 않으면서 공을 처리하는것을 자기식의 기준으로 삼은 리명국은 공반응반복훈련과 공자리길예측판단에 의한 정확한 결심채택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훈련을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 선수들의 개성과 특기, 여러 나라 축구명수들의 기술적특징을 파악하는것을 비롯하여 문지기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하나하나 피타는 노력으로 숙달해나갔다.

그는 경기마다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공방전속에서도 항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날아드는 공을 제때에 처리하군 하는 든든한 《빗장》이였다.

리명국은 국가축구대표팀 문지기로 국제경기들에 등장하면서 더욱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는 2010년 남아프리카월드컵대회 본선경기참가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아시아지역예선경기들에서 625분동안 상대팀에 한꼴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전에 518분간 실점을 당하지 않아 이름을 날린 이딸리아의 문지기 월터 첑가의 기록을 돌파하였다.

그는 30대중반을 넘길 때까지 선수생활을 하였다.

리명국이 2008년에 진행된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받은 최우수문지기상

그의 감독은《자기를 다 바치며 열정적인것이 그의 장점이다. 그에게 어느때든 경기참가를 요구하면 설사 상처를 입고 몸이 불편해도 거절해본적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리명국은 국제축구경기대회들에서 두차례에 걸쳐 최우수문지기상을 수여받았다.

16년간이나 국가축구대표팀 문지기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평양체육단 축구문지기감독사업을 시작한 그는 《앞으로 경기장에서 제2의 〈리명국〉을 보기 바란다.》는 전문가들과 축구애호가들의 기대에 보답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간주하고 오늘도 훈련장에 서있다.

우승을 향하여

주체89(2000)년 5월에 창립된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은 각 도의 태권도선수단들중에서 손꼽히는 단위의 하나이다.

평성시 양지동에 위치하고있는 선수단에는 육체훈련실을 비롯한 훈련장들과 경기장,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그리고 평안남도청소년태권도학교가 부속되여있다.

대다수가 국제경기참가전적을 가진 사범들인 감독진영은 선수단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감독들은 해마다 도안의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고급중학교 태권도소조들에 나가서 직접 선발한 학생들과 청소년태권도학교의 우수한 졸업생들을 받아들여 유능한 선수로 키우고있다.

그들은 선수들이 태권도의 원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의 동작을 숙련하여도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매 선수들의 나이와 성격 등에 맞추어 훈련지도를 짜고들고있다.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빛내이려는 선수들의 훈련열의도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하여 선수단에서는 지금까지 우수한 태권도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였다.

주체107(2018)년에 있은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인맞서기 92㎏급경기에서 1등을 한 조국현과 지난해에 진행된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린 김광선, 박념원, 리성희 등은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의 선수들이다.

사진 안철룡, 글 김선경

훈련의 쉴참에

라선의 습지를 찾아서 (2)

라선지구에서는 두만강하구의 넓은 지역만이 아니라 바다연안과 섬들에서도 다종다양한 새들을 볼수 있다.

조선동해의 라진만과 조산만을 비롯한 크고작은 만에는 물고기와 조개, 새우, 성게 등 수생동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지역의 섬들은 바다새들의 리상적인 서식 및 번식지로 되고있다.

특히 라선시 선봉지구의 우암앞바다에 있는 알섬에만도 여러종의 갈매기를 비롯하여 바다가마우지, 검은가마우지, 바다오리, 붉은발바다오리 등 수만마리의 바다새들이 서식하고있어 섬의 높낮은 바위와 벼랑들마다 새둥지들이 숲을 이루고있다.

주체105(2016)년 7월에 엄지와 새끼들로 이루어진 290여마리의 바다가마우지무리가 관찰되였다.

번식기인 5~6월이 오면 수십종의 바다새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잡고 알을 품는것으로 하여 섬의 그 어디나 알천지이다.

알섬이라는 섬이름도 이로부터 유래되였다.

나라에서는 새의 섬으로 알려진 알섬을 바다새보호구로 설정하였다.

우암앞바다는 물개와 물범살이터로도 유명하다.

물개는 봄에 번식지를 찾아 북태평양연안으로 올라갈 때 조선동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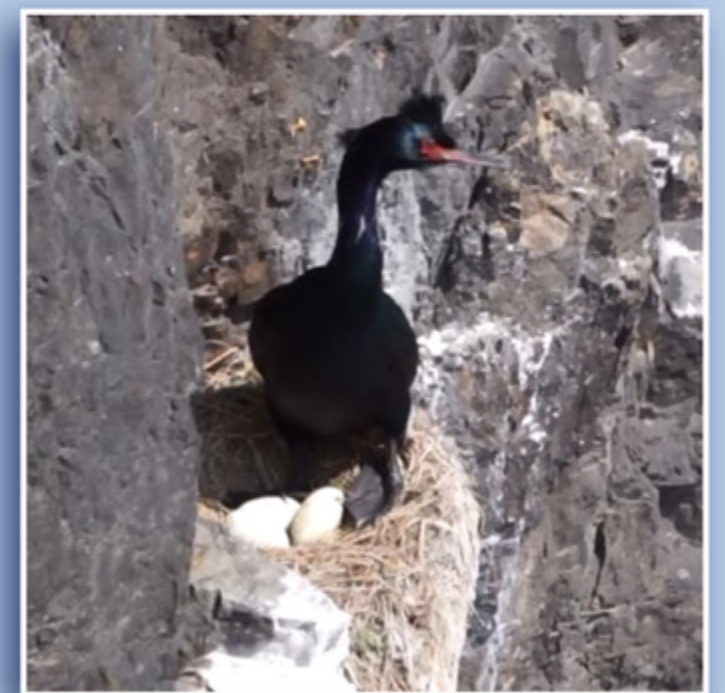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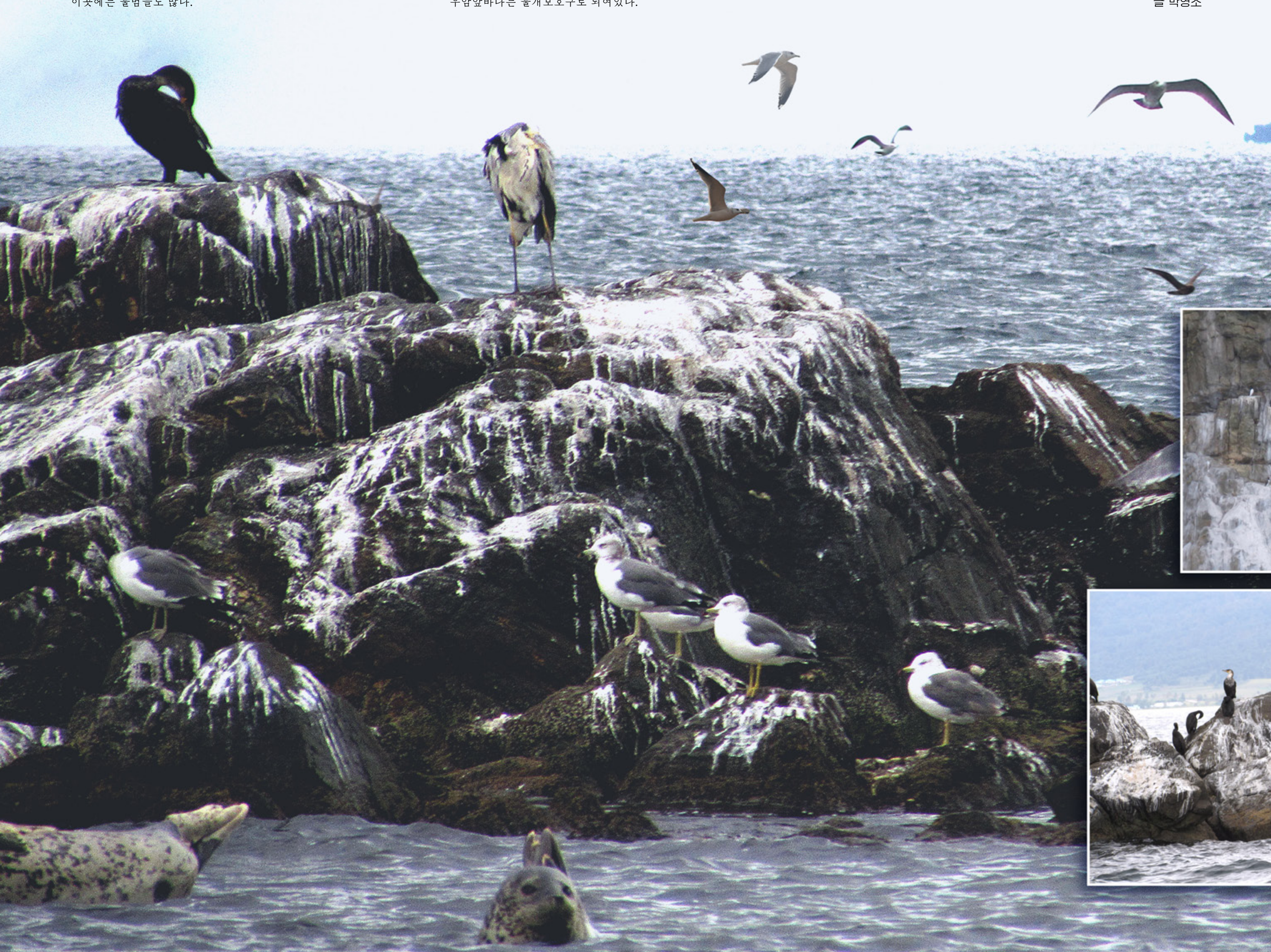
에 나타나는데 이때 우암앞바다와 섬들에서는 무리를 지은 물개들을 수많이 볼수 있다.

이곳에는 물범들도 많다.

해마다 이곳의 바다와 섬들에서 떼를 지어 노니는 물범과 물개들의 모습은 류다른 풍치를 돋구고있다.

우암앞바다는 물개보호구로 되여있다.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데 대한 국가의 일관한 정책으로 하여 라선의 습지생태계는 더욱 풍부해지고있다.

글 박영조

고성의 특산 참대

조선의 명산 금강산이 솟아있는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도처에서 무성한 참대숲을 볼수 있다.

이 일대는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아 참대가 자라는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있다.

이곳의 년평균기온은 11℃이고 1월평균기온은 -2.1℃, 8월평균기온은 23.6℃이며 년평균강수량이 1 580.8㎜이다.

300여정보에 달하는 참대밭에서 자라는 참대의 품종은 9종이다.

그중에서 유명한것이 삼일포리와 순학리에 퍼져있는 고성참대이다.

고성참대는 높이가 16m, 뿌리목둘레는 58㎝, 가슴높이둘레는 55㎝이고 나무갓너비는 1.8m로서 여러 참대품종가운데서 제일 좋은 품종이다.

고성참대밭에서는 해마다 1 600여그루의 새순이 돋아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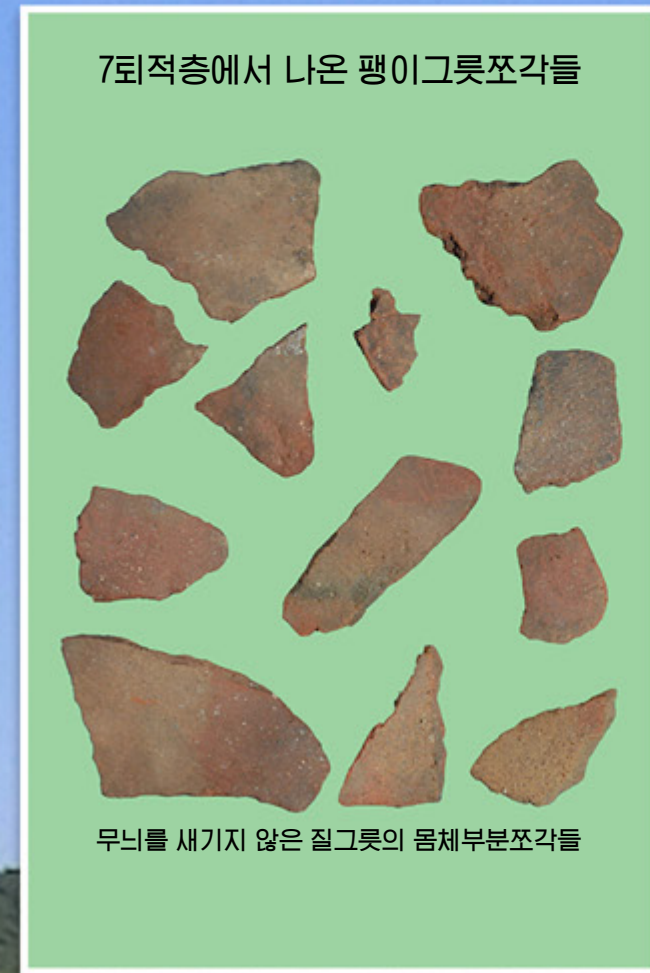
고성참대밭은 참대의 생태 및 재배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큰 학술적의의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주체71(1982)년 12월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되였다.

고성일대에서 나는 참대로 만든 여러가지 제품들은 전국적으로 그 수요가 높다.

사진 안철룡, 글 김미예

강동군에서 새로 발굴된 원시동굴유적

동굴입구

퇴적층의 자름면도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에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이 차례로 겹놓인 원시동굴유적이 새로 발굴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의 연구집단은 력사유적들에 대한 조사와 발굴,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구석기시대 문화층(4층, 5층)에서 포유동물화석(짐승뼈화석) 9종에 1 650여점과 석기 8종에 16점, 포분화석 280여개를, 신석기시대 문화층(6층)에서 조선옛류형사람의 이발 5개와 질그릇쪼각 40점을, 청동기시대 문화층(7층)에서 질그릇쪼각 10여점을 찾아냈다.

연구사들은 구석기시대 문화층에서 발굴한 유물들에 대한 전자상자성공명년대측정, 열형광년대측정을 진행하여 형성년대가 3만 6 000~3만 4 000년전인 구석기시대 후기의것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석기의 종류와 재료, 제작수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여기에서 나온 석기들도 구석기시대 후기에 널리 쓰인 로동도구라는것을 해명하였다.

또한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 발굴한 조선옛류형사람의 이발은 신석기시대의 50대 녀성의것이고 신석기시대 문화층과 청동기시대 문화층에서 나온 질그릇쪼각들은 형태와 색갈, 무늬 등을 연구분석하여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물이라는것을 밝혀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와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유적발굴과 연구정형을 심의하고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동굴유적을 국보유적으로 등록하였다.

지난 시기 강동일대에서는 국가형성의 사회력사적전제가 충분히 마련되여있었다는것을 확증하는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많이 발굴되였으나 인류력사의 려명기에 해당되는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발굴된 향목리동굴유적은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묻혀있는 강동군일대가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태를 묻고 살아온 곳이며 현대조선사람의 력사적뿌리가 내린 지역의 하나이라는것을 론증하고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사회관계와 생산활동, 조선민족사의 유구성을 보다 풍부한 자료들로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인류진화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밝혀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필

낸곳 : © 조선화보사 2020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편집 서철남 13606-2080156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동해명승 해금강 사진 공유일